

# ‘쟁점법안’ 놓고 오늘 정면충돌?

# 비정규직법 어떻게 될까

5인 연석회의의 오늘 재개... ‘원·포인트’ 처리 관심

## 與 비정규직 29일-미디어법 내달 처리 민주 등 야권 공조 퇴로 없는 결사항전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 개회 예정일인 26일을 맞아 여야의 물리적 충돌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여권은 개회 하루 전인 25일에도 정면 돌파 방침을 굽히지 않은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공조를 통해 실력 저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분리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을 이번 회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선(先) 비정규직법 처리, 후(後) 미디어법 처리’로 완급조절에 나선 것.

한나라당은 우선 29일 또는 30일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할 계획

이다. 김정은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비정규직법은 7월1일부터 시행돼야 하므로 30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며 “29, 30일 본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접점찾기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합의도출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민주당의 극력 저지가 맞물려 국회는 극도의 충돌 상황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회기말, 즉 내달 중순 이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에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도 “내용은 대폭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한나라당의 ‘MB악법’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결사항전 태세를 다졌다. 특히 한나라당이 ‘오는 29~30일 비정규직법, 내달 중순 미디어법 처리’라는 로드맵을 마련, 법안 처리를 위한 단계적 수순발기에 들어가면서 “일방처리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퇴로 없는 저지에 나선 것.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미디어법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답”이라며 “철회 자체가 어렵다면 최소한 냉각기를 갖고 정기국회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일단 미디어법 처리시기를 정기국회 이후로 미룸으로써 ‘시간벌기’를 하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으로 미디어법 논의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게 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나리오별로 저지전략 짜기에 부심했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

민주당은 이날 특히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의 대표가 회동을 통해 26일 예정된 본회의의 개최 전, 본회의장 앞에서 야권 공동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야권은 또 국회가 개최되더라도 전 상임위를 보일 것임을 예고했다.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의 개정 시점이 촉박한 가운데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여야는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위원장직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으나 접점 도출에 실패, 26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안이 마련되면 오는 29~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선진당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1년6개월 유예안’ 제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수용 의사를 내비쳤으나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 뒤 한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된 게 없다. 시각차가 너무 크다”고 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내일 오후 회의를 재개해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구상을 피력,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표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오는 29~30일 비정규직법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법은 내달 중순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대중 의견이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고위정

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분리대응에는 입장이 같다”며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29~30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을 명시한 현행법을 개정, 이 조항의 적용을 3년 후로 유예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충과 현행법 대로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사실상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연석회의에서 주요 쟁점이 극적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다소 우세한 편이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 국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 국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가 라운지

## 이낙연 “정부서 2008년산 재고쌀 정리키로”

○... 쌀값 안정과 수확기 원활한 쌀 수매를 위해 정부가 적정량의 2008년산 쌀 재고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소속 이낙연(사진) 국회 농업수산물위원회장이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전국협의회 임원진의 “쌀 수급 과잉물량 10만톤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는 건의를 받고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장 장관은 “늦지 않은 시기에 일정량을 처리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며 “발표라도 먼저 해서 쌀값 하락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한편,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쌀 재고량은 55만4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만3천톤에 비해 40%나 많다.



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하지만 전남지역 4년제 대학에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는 인구 노령화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환경이 가장 열악한 전남지역에 약학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전남도가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초인력 배출을 위해서도 약학대학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광산구청장 출마설 김환규씨 명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환규(59·사진) 북구 부구청장이 오는 29일 퇴임한다.

김 부구청장은 지난 2007년 1월 북구 부구청장에 취임했으며 정년은 1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 출신인 김 부구청장은 송일고, 광주대,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나와 조선대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광주비엔날레 관리부장, 광주시 국제협력과장,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시청 파견공무원, 광주시 경제통상과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현재 비아중학교와 송일중·고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에 약학대학 신설 촉구

○...한나라당 박재순(사진) 최고위원은 25일 “전남지역 대학에 약학대학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지역은 낙도 276곳, 오지 69곳,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118곳이나 돼 사실상 약사의 사의 역할을 수행하



## “與 단독개원때 국민 저항 직면할 것”

###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 등 ‘MB악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강력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수석부대표는 이날 광주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파행을 막으려고 막판까지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을 믿고 오만한 자세로 단독 개원에 나



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 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석

회의에서 합의안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온 몸을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력 국회” 논란에 대해서는 “다수의 힘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폭력국회”라며 “오죽하면 소수 야당이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결사 항쟁에 나서겠느냐. 민주당은 물러설 곳이 없다”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과 관련,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여론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편으로는 직권상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명품아울핏-렉시티  
최고급 명품 영수혜대 상위급 고객지원

명품모르는 영풍시장 함께할 광주남을 모십니다.

1MYUNG 명품아울핏 (주)렉시티 입점문의 : 060-712-0000

독스바겐 전 차종 하계 캠페인 실시

2009년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www.vw.com